영어어문교육 *제32권* 2호 2026년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6.32.2.159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및 영어교육과 진로교육 참여현황*

이혜진
(원광대학교)

Lee, Hyejin. (2026). A meta-analysis of career education effectiveness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 participation status of English education majo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2*****(2), 159-184.**

This meta-analysis synthesized domestic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25 to examin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llowing the PRISMA guidelines, 80 effect sizes extracted from 44 studies were analyzed using a random-effects model with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The overall mean effect size was moderate (Hedges' g = 0.535). Two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ors were identified via Meta-ANOVA, including program type (p = .027), where extracurricular/employment support (g = 0.695) and counseling/coaching (g = 0.682) outperformed career courses (g = 0.457), and instructional format (p = .006), with activity-centered programs (g = 0.681) yielding significantly higher effects than combined lecture-activity approaches (g = 0.453). Among dependent variables, career identity (g = 0.652)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 = 0.628) showed the highest effects, while career stress/barriers remained unaffected. An analysis of participation data from a College of Education from 2022 to 2024 revealed that English education majors predominantly engaged in activity-based extracurricular program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meta-analytic findings and suggests that university career support should prioritize student-centered experiential activities and personalized counseling.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experiential and learner-centered career interventions are more effective than conventional lecture-based approaches in higher education.

[meta-analysis/career education/university students/English education majors, 메타분석/진로교육/대학생/영어교육전공]

* 본 연구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RF-2024S1A5A8019854).

Ⅰ. 서론

한국교육개발원(2025.12.30)이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9.5%로 전년도(70.3%) 대비 0.8%p 하락하였으며, 이 전체 수치 이면에는 의약계열(79.4%)과 공학계열(70.4%)은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인문계열(61.1%), 예체능계열(66.7%) 등이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계열 간 양극화가 존재한다. 이 양극화의 가장 심각한 지점에 교육계열(45.8%, 전체 계열 최하위)과 어문계열(57.3%)이 위치하며, 영어교육과는 이 두 계열의 교차점에서 이중적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으로 사범대 학생들은 임용시험 준비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해 왔으며, 진로교육이라 함은 곧 교사 임용준비에 가까웠다. 그러나 교육부(2003)가 약 4,898명이던 중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26~2027년에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등교원 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용 중심의 단일 진로 전략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범대학 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진로상담, 이력서 면접 코칭, 진로교과목 등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에 대한 근거기반(evidence-based)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교육은 크게 개인 대상 프로그램(자기소개서 지도, 모의면접, 진로심리검사,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대상 프로그램(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진로교과목, 실무진 특강)으로 구분되며(김기현, 2015), 오성은(2023)이 전국 227개 4년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54.6%), 면접 및 이력서 작성(50.2%), 직업심리검사(49.8%), 진로·취업 교과목(45.8%), 취업캠프(40.5%)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진로교육이 자아존중감(김대룡, 2021), 진로발달(이형국, 2007), 진로적응력,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수연, 김봉환, 2026), 진로준비행동(김수란, 정미경, 2014; 허은영, 2009) 등 다양한 변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 그러나 개별 연구들 사이에는 효과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 상충되는 결과도 적지 않다. 윤영란(2014)은 강의중심 진로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 영역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반면, 윤명희 외(2007)는 강의식 진로교육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증진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일한 수업 방식임에도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은, 참여 대상의 특성, 처치 기간, 프로그램 구성 요소, 측정 도구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메타분석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출간된 국내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효과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그동안 산발적, 상충적으로 보고되어 온 진로교육의 효과크기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어떠한 조절변인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어떤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계적 결론과 실제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메타분석 연구들은 주로 선행문헌에 보고된 효과크기를 통합하여 진로교육의 평균적 효과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현장 자료와의 연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확보한 거시적 근거와 사범대 및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미시적 참여실태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정 대상 집단의 교육적 수요와 실천적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메타분석 결과가 단순한 학술적 결론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 현장에서의 근거기반 진로지도, 프로그램 설계의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제한된 대학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실천적 근거로 활용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의 전반적 효과크기(Hedges' *g*)는 어떠한가?
둘째, 진로교육의 중재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진로교육의 효과크기는 조절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사범대 및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진로교육 참여실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진로교육의 유형 및 운영특성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은 그 운영 형태와 지속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크게 개인대상 프로그램(자기소개서 지도, 모의면접 준비, 진로심리검사, 개인 진로상담)과 대규모 및 집단대상 프로그램(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진로교과목, 실무진 특강)으로 구분되며(김기현, 2015),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시 단발성, 일회성 교육(취업특강, 박람회, 채용설명회 등)과 다회성, 정기적 교육(진로교과목, 정기 집단상담, 진로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우(2024)는 이를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실질적 취업 지원의 3유형으로 체계화하였고, 오성은(2023)은 전국 227개 4년제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진로 교육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운영 형태에 따라 진로 교과목, 상담, 코칭, 비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오성은(2023, 표 9)의 조사자료를 본 연구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전국 4년제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

유형	세부 프로그램	운영 대학 수	운영률(%)
진로 교과목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104	45.8
상담 · 코칭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124	54.6
	직업 심리검사(인 · 적성 등)	113	49.8
비교과/취업지원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114	50.2
	취업캠프	92	40.5
	직장체험 프로그램	85	37.4
	교내취업박람회	79	34.8
	기업 채용설명회	74	32.6
	기타	66	29.1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대학의 진로교육은 진로 교과목(45.8%)뿐만 아니라 진로 관련 상담(54.6%), 직업심리검사(49.8%), 면접 및 이력서 작성(50.2%) 등 상담코칭 및 비교과/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학 진로교육이 단일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유형이 진로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주영과 김경희(2020)는 집단상담 형태(g = 0.860)가 특강(g = 0.570)과 교과목(g = 0.451)보다 유의하게 높은 효과크기를 보임을 확인하였고(Q = 11.709, p < .01), 김소정과 이슬이(2024)에서도 멘토링, 특강(g = 0.647) 이 교과목(g = 0.555)이나 상담, 코칭(g = 0.539)보다 높았으며, 진로, 취업 동아리(g = 0.32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Qb = 25.7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멘토가 멘티의 진로발달과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지은, 조용선, 2022)와 일치한다. 구성 방식도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이나, 선행연구 간 결과가 상이하다. 윤영란(2014)은 활동중심 수업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반면 강의중심 수업은 문제해결 영역의 향상을 보이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고, 김기현(2015)도 활동 중심이 강의 중심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은석과 이형국(2020)은 활동 중심이 학생 참여를 이끌어내지만 전문적 진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 강조하는 심층적 환경탐색 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보 전달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상 학년 역시 진로교육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종찬과 홍아정

(2012)은 취업 진로교과목이 고학년에서 실시될수록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고, 강미영(2015)과 민춘기(2013)는 저학년부터의 진로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이은석과 이형국(2020)에서 학년혼합($g = 0.612$)이 저학년($g = 0.545$)과 고학년($g = 0.370$)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Q = 12.61, p < .01$), 김소정과 이슬이(2024)에서는 학년혼합($g = 0.538$)과 특정학년($g = 0.533$)이 거의 동일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Qb = 0.073, p = .964$). 이처럼 수업 방식의 효과성은 교수방법의 특성과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방식 분류를 넘어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기간(회기 수)의 경우, 최주영과 김경희(2020)에서 단기($g = 0.645$)와 장기($g = 0.689$)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Q = 0.209, p > .05$), 김소정과 이슬이(2024)에서도 운영기간에 따른 차이가 비유의하여($Qb = 0.68, p = .713$), 기간 자체보다 내용 구성과 운영 방식이 효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한편, 팬데믹 이후 비대면/혼합 운영 방식이 새로운 조절변인으로 부상하였으며(김소정, 이슬이, 2024; 심기현 외, 202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절변인에 대한 메타 ANOVA를 실시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변인

국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진로관련 변인들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종속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진로스트레스/장벽, 직업기초역량 8가지다. 이 변인들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변인의 이론적 기반, 측정 도구, 하위 구성요소, 진로교육 연구에서의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인 자신이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진로 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다. 측정에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가 널리 사용되며,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진로의사결정을 다면적으로 포착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진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변인으로(김기민, 정철영, 2023),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도 향상(조혜영, 2023)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유의미하게 증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강민철 외, 2017). 둘째,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이 전공 및 직업선택 과정에서 장래 진로에 대해 확고하게 느끼는 정도를 뜻하며,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개인이 도달한 발달 정도와 직업적 준비도를 의미한다(Harren, 1979). 셋째, 진로

성숙도는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연령 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발달 과업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이자 진로선택에 임하는 태도적, 인지적 성숙 수준을 의미한다. 측정 도구로는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가 대표적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정우진, 정승철, 2021), 다수의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월주, 김소영, 2017; 방희원 외, 2020; 윤영란, 2019). 진로결정수준이 확신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진로성숙도는 전반적 발달 수준과 준비도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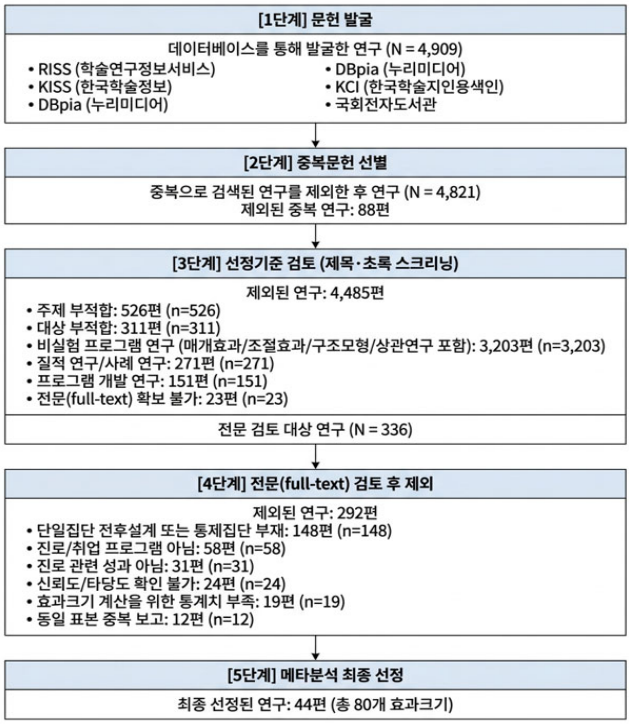
넷째, 진로정체감은 Erikson(1963)의 자아정체감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의미한다. 이형국(2007)은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의 두 축으로 구성되는 안정된 진로 관련 자아상으로 보았으며, 허은영(2009)은 진로지도 교과목 수강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다섯째, 진로 의사결정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이고 외현적인 행위로(김선중, 2005), 인지, 정서적 변인과 달리 실제 행동 수준에서 진로발달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김봉환(1997)은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세 측면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여섯째,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직무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이자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Savickas, 2005)으로,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손영민(2016), 김지연과 장은영(2019), 채희원(2023) 등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일곱째, 진로스트레스/장벽은 진로결정 과정의 환경적, 심리적 장애요인을 포괄하는 변인으로(박재춘, 김주섭, 2017), 아직까지 진로교육이 진로장벽을 낮추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김수란, 정미경, 2014). 여덟째, 직업기초역량은 특정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직업생활 전반에서 요구되는 기초적 능력을 의미하며, 진로발달의 최종 산물로서 취업 및 직무 수행 준비도를 나타낸다. 직업기초역량과 관련하여 구직효능감과 실무역량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서영균, 강혜영, 2019; 변미정, 김봉환, 2022), 진로동기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강채미, 2021). 이상의 변인들은 인지적(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행동적(진로준비행동, 직업기초역량), 정의적(진로스트레스/장벽, 진로동기) 영역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메타분석을 통한 종합적 효과크기 비교를 실시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PRISMA 2020 가이드라인(Page 외, 2021)에 따라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 대상은 2000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지 논문 및 학위 논문이며,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 스콜라 등 학술 DB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대학생 AND 진로교육', '대학생 AND 진로교과', '대학생 AND 진로프로그램 AND 효과' 등의 핵심 키워드 조합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색 범위는 논문 제목, 초록, 주제어로 한정하였다. 문헌의 체계적 선별을 위하여 PICOS(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고, PRISMA 흐름도에 따라 식별(Identification), 선별(Screening), 적격성 평가(Eligibility), 포함(Inclusion)의 4단계로 진행하였으며 그림 1의 PRISMA 흐름도에 제시하였다.

그림 1
PRISMA 흐름도에 따른 문헌 선별 과정



첫째, 식별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4,909편의 문헌이 수집되었다. 선별 단계에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으로 검색된 88편을 제외하여 4,821편이 남았고, 이어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 진로·취업과 무관한 주제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n = 526), (2) 연구대상이 대학생이 아닌·초중고생, 대학원. 재직자. 성인학습자 등이 혼재된 연구(n = 311), (3) 프로그램 처치 없이 변인 간 관계만을 탐색한 상관, 회귀, 매개, 조절, 구조방정식 등의 양적연구(n = 3,203), (4) 질적연구, 사례연구, 실태조사, 문헌고찰, 동향분석, 메타분석, 델파이 연구(n = 271), (5)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화 연구로서 효과검증을 미실시하거나 파일럿 수준에 그친 연구(n = 151), (6) 원문 미제공 연구(n = 23)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여, 총 4,485편이 제외되고 336편이 적격성 평가 대상으로 남았다.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첫째, 처치 변인이 대학에서 운영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진로교과목, 진로상담·코칭 프로그램, 비교과 진로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고, 종속 변인이 진로, 취업과 관련된 변인(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등)인 논문이어야 한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설정된 실험연구 또는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연구여야 한다. 셋째,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정보(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t값 또는 F값, p값 등)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7) 실험-통제집단이 설정되지 않은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n = 148), (8) 처치변인이 대학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n = 58), (9) 종속변인이 진로 관련 변인이 아닌 연구(n = 31), (10) 연구결과의 신뢰도, 타당도 확인이 불가한 연구(n = 24), (11) 효과크기 산출에 필요한 통계치가 미보고 되거나 불완전한 연구(n = 19), (12) 동일 표본이 복수 논문에 중복 보고된 연구(n = 12)를 추가로 제외하여, 적격성 평가 대상 336편 중 총 292편이 제외되었다. 포함 단계에서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참고문헌 역추적 및 추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초기 검색에서 누락된 문헌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4편의 문헌이 본 연구의 메타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연구로부터 추출된 효과크기는 총 80개(k = 80)가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분석에 투입되었다. 한 연구에 복수의 진로 관련 변인이 포함된 경우, 특정 연구에 효과크기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체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해당 연구의 핵심 연구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종속변인의 효과크기를 대표값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 연구에서 복수 효과크기가 존재할 경우 효과크기 독립성 가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표값 선정 방식을 통해 이를 통제하였으며, 그 결과 한 연구당 평균 약 1.8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한편, 메타분석의 통계적 근거를 현장 실태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재직하는 사범대학의 진로교육 참여현황 데이터를 병행 수집하였다. 현장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확보하였다. 첫째, 사범대학 재학생의 희망진로 및 진로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4학년도 2학기에 사범대학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글폼즈 기반의 학생지도체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8명이 응답하였으며, 희망진로(교직, 비교직, 미정), 진로결정도, 진로준비도, 임용시험 응시계획 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자발적 진로교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교내 부서(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과, 교육혁신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2022~2024학년도 3개년간 사범대학 및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별도로 분리 집계하였다.

2. 분석방법

본 분석의 엄밀성과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범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통계측정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 1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았다. 해당 자문위원은 다수의 메타분석 연구 및 특강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방법론 전문가로서, 문헌 선별 기준의 적절성 검토, 효과크기 코딩, 조절변인 범주화의 타당성 확인, 통계 모형 등 연구설계에서 해석에 이르기까지 협의하였다. 효과크기는 소표본 편향을 교정한 Hedges' g를 공통단위로 사용하였으며, 그 해석은 Cohen(1988)의 기준(소: 0.2, 중: 0.5, 대: 0.8)에 따랐다. 선행 메타분석 연구에서 이은석과 이형국(2020)은 R 프로그램, 최주영과 김경희(2020)는 CMA, 김소정과 이슬이(2024)는 STATA를 각각 분석도구로 사용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CMA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들이 서로 다른 대학, 학년, 프로그램 유형, 처치 기간을 포함하여 모집단 효과가 단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통계 모형은 무선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하였다. 연구 간 이질성 검증은 Q 통계량과 I^2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I^2 값은 Higgins 외(2003)의 기준(25% 낮음, 50% 중간, 75% 이상 높음)에 따라 해석하였다. 범주형 조절변인(중재 유형, 대상 학년, 프로그램 운영기간, 대학 소재지, 종속변인 유형 등)의 효과크기 차이 검증은 메타 ANOVA를 통해 수행하였다.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은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하여 Funnel plot을 통한 시각적 대칭성 확인, Egger의 회귀 절편(Egger's regression intercept), Begg와 Mazumdar의 순위상관검정(rank correlation test), 고전적 안전계수(Classic fail-safe N), Duval과 Tweedie의 절삭 및 보충법(Trim and Fill) 방법을 함께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 = .05$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전체평균 효과크기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별된 논문에서 추출한 총 80개의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동질성 검정 결과를 통해 $Q = 584.094$ ($df = 79$, $p < .001$)로 효과크기가 동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I^2 = 86.475\%$ 로 나타나 Higgins 외 (2003)의 기준(25% 낮음, 50% 중간, 75% 이상 높음)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이질성을 보였다. 이는 전체 분산 중 약 86.5%가 연구 간 실제 차이에 기인함을 의미하므로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Hedge's $g = 0.535$ (SE = 0.041, 95% CI [0.455, 0.61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13.119$, $p < .001$).

표 2
진로교육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Model	*k*	*ES(g)*	*SE*	*LL*	*UL*	*Z*	*p*	I^2(%)	*Q*
Random	80	0.535	0.041	0.455	0.615	13.119	.000	86.475	584.094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g = 0.535$는 중간 수준(medium effect)에 해당하며, 이는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관련 변인의 향상에 중간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메타분석들과 비교할 때 일관된 수렴적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은석과 이형국(2020)의 진로교과목 메타분석($g = 0.457$)보다는 다소 높고, 최주영과 김경희(2020)의 결과($g = 0.76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위 연구 모두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이 진로 관련 변인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효과크기가 이은석과 이형국(202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가 진로교과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상담, 코칭, 비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까지 포괄한 분석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조절효과 분석

분석대상 연구의 효과크기 간 이질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메타 ANOVA를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편 이상의 연구 수(k)를 확보한 하위 범주에 한해 검토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표 2에 제시된 통계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k는 각 하위 범주에 포함된 효과크기의 수, ES(g)는

Hedges' g로 산출한 평균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LL(Lower Limit)과 UL(Upper Limit)은 각각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이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Qb 는 조절변인의 하위 집단 간 효과크기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량으로, 그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집단 간 효과크기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진로교육의 평균효과크기

조절변인	k	ES_g	LL	UL	Q_b	p
프로그램 유형						
비교과/취업지원	6	0.695	0.385	1.005		
상담, 코칭	26	0.682	0.531	0.833	7.236	.027*
진로교과	48	0.457	0.362	0.552		
대상 학년						
학년혼합	42	0.538	0.427	0.650	0.073	.964
특정학년	37	0.533	0.413	0.652		
프로그램 기간						
단기(<8회기)	12	0.726	0.504	0.948	3.333	.189
장기(13회기+)	40	0.518	0.408	0.627		
중기(8-12회기)	28	0.489	0.349	0.630		
운영 방식						
대면	74	0.557	0.472	0.642	2.309	.129
비대면/혼합	6	0.333	0.056	0.609		
구성 방식						
활동중심	34	0.681	0.549	0.813	7.636	.006**
강의+활동	46	0.453	0.358	0.547		

*p < .05, ** p < .01

1)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b = 7.236, p = .027). 효과크기는 비교과/취업지원(k = 6, g = 0.695), 상담·코칭(k = 26, g = 0.682), 진로교과(k = 48, g = 0.457) 순으로 나타나, 비교과 및 상담 기반 프로그램이 교과 기반 프로그램보다 유의하게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메타분석과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최주영와 김경희(2020)에서도 집단상담(g = 0.860)이 교과목(g = 0.451)보다 유의하게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김소정와 이슬이(2024)에서도 멘토링·특강(g = 0.647)과 종합 프로그램(g = 0.641)이 교과목(g = 0.555)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진로교과의 효과크기가 본 연구(g = 0.457), 이은석과 이형국(2020)(g = 0.457), 최주영과 김경희(2020)(g = 0.451)에 걸쳐 범위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는 교과 기반 진로교육의 효과가 매우 안정적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요컨대 진로교과는 경제성·체계성·접근성의 장점을 지니지만, 단독 운영 시에는 비교과 및 상담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크기가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음이 네 편의 메타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다.

2) 대상학년

대상 학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b = 0.073$, $p = .964$). 학년혼합 집단($k = 42$, $g = 0.538$)과 특정학년 집단($k = 37$, $g = 0.533$)의 효과크기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진로교육의 효과는 대상 학년의 구성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 학년의 경우 학년혼합($k = 42$)과 특정학년($k = 37$)의 합이 79로 전체 80개보다 1개가 적은데, 이는 원 연구에서 대상 학년 정보가 미보고된 1편을 분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의 효과가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가'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적, 구조적 설계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하며, 학년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의 진로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내용 설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함의한다.

3)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b = 3.333$, $p = .189$). 단기 프로그램(8회기 미만, $k = 12$, $g = 0.726$)의 효과크기가 장기(13회기 이상, $k = 40$, $g = 0.518$) 및 중기(8~12회기, $k = 28$, $g = 0.489$) 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주영과 김경희(2020)에서 프로그램 실시 회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Q = 0.209$, $p > .05$)와 일관된다. 즉, 진로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운영되는가보다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단기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향은, 집중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된 단기 개입이 장기 프로그램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대학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전략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4) 운영 및 구성방식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른 분석결과, 활동중심 프로그램($k = 34$, $g = 0.681$)이 강의+활동 병행 프로그램($k = 46$, $g = 0.453$)보다 유의하게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Qb = 7.636$, $p = .006$).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확인된 조절효과로,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가 진로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이 결과는 이은석과 이형국(2020)의 연구에서 강의+활동 절충 방식($g = 0.491$)이 활동 중심 방식($g = 0.228$)보다 효

과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은석과 이형국(2020)은 진로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워크숍, 기업탐방, 멘토링 등 체험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이 활동중심 범주의 효과크기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대학 진로교육 설계에 있어 강의식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이 직접 진로 관련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체험형 구성 요소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종속변인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종속변인에 따른 진로교육의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속성(인지적, 행동적, 정의적)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는 각 종속변인이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에 따른 상위 분류이며, 후자는 진로교육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 수준의 분류이며 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종속변인 유형에 따른 진로교육의 효과크기

구분	*k*	*ES(g)*	*LL*	*UL*	Q_b	*p*
변인속성						
인지적	55	0.560	0.463	0.657		
행동적	21	0.485	0.331	0.640	0.801	.670
정의적	4	0.466	0.117	0.814		
종속변인						
진로정체감	10	0.652	0.392	0.912		
진로준비행동	18	0.628	0.451	0.80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9	0.610	0.437	0.783	13.044	.071
진로적응성	9	0.577	0.322	0.831		
진로성숙도	9	0.495	0.253	0.737		
진로결정수준	8	0.484	0.224	0.743		
직업기초역량	3	0.318	-0.100	0.736		
진로스트레스/장벽	4	-0.031	-0.399	0.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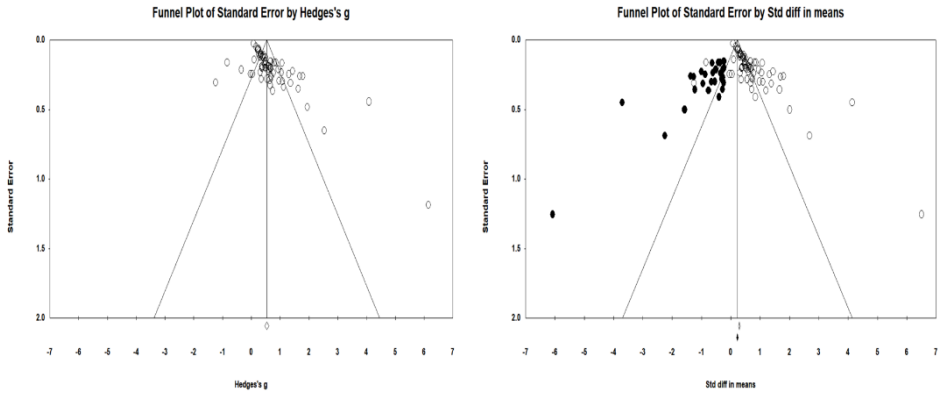
종속변인을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세 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적 변인(k = 55, g = 0.560, 95% CI [0.463, 0.657])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고, 행동적 변인(k = 21, g = 0.485, 95% CI [0.331, 0.640])과 정의적 변인(k = 4, g = 0.466, 95% CI [0.117, 0.814])이 그 뒤를 이었으나, 세 속성 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b = 0.801, p = .670). 세 범주 모두 Cohen(1988)의 기준상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에 해당하여,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인지, 행동, 정서 전반에 걸쳐 비교적 균일한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의적 변인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연구 수가 k = 4에 불과하고 95% 신뢰구간의 폭이 0.117~0.814로 상당히 넓어, 추정의 안정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종속변인별로는 진로정체감(g = 0.652), 진로준비행동(g = 0.628), 진로결정자기효능감(g = 0.610), 진로적응성(g = 0.577), 진로성숙도(g = 0.495), 진로결정수준(g = 0.4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6개 변인은 모두 95% 신뢰구간의 하한이 0을 상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b = 13.044, p = .071).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는 이은석과 이형국(2020)에서 진로준비행동(g = 0.649)이 최고치를 보인 것, 김소정과 이슬이(2024)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g = 0.898)이 가장 컸던 것과 일관된 방향이다. 반면, 직업기초역량(g = 0.318, 95% CI [-0.100, 0.736])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고, 진로스트레스/장벽(g = -0.031, 95% CI [-0.399, 0.336])은 효과크기가 영에 수렴하여 현행 진로교육이 정서적 부담 완화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자의 결과는 최주영과 김경희(2020)에서 정의적 영역(g = 0.172)이 현저히 낮았던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마음챙김 기반 코칭이나 진로 불안 감소 상담 등 정서적 개입을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4. 출판편향 분석

본 메타분석에 포함된 80개 효과크기의 출판편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각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그림 2의 좌측은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 보정 이전의 관측값(observed studies)만을 제시한 Funnel plot이며, 우측은 대칭성 회복을 위해 보정된 연구(imputed studies)를 함께 제시한 Funnel plot이다.

그림 2
출판편향 검증을 위한 Funnel Plot: 관측값(좌) 및 Trim and Fill 보정값(우)



먼저 Funnel plot을 도출한 결과, 효과크기의 분포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인 깔때기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평균의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표준오차가 큰 하단부에서 평균의 왼쪽 영역, 즉 작은 효과크기 또는 음의 효과크기를 보고한 소규모 연구군이 체계적으로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Rothstein 등(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반면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효과를 보고한 소규모 연구는 게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계적 검증에서도 출판편향의 존재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Begg와 Mazumdar(1994)의 순위상관검정에서 Kendall's $\tau = 0.428$($z = 5.592$, $p < .001$)로 유의하였으며, Egger 외(1997)의 회귀절편 검정에서도 절편 = 3.106(95% CI [2.376, 3.835], $t = 8.479$, $df = 78$, $p < .001$)으로 유의하였다. Classic fail-safe N은 6,046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6,046개의 비유의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을 의미한다(표 5). 최주영과 김경희(2020)에서도 Begg 검정에서 $z = 5.167$($p < .001$)로 유사하게 출판편향이 확인된 바 있다.

표 5
Duval and Tweedie의 Trim and Fill 분석 결과

구분	보정연구수	고정효과추정치	LL	UL	랜덤효과추정치	LL	UL	Q
관측값		0.291	0.266	0.317	0.535	0.455	0.615	584.094
보정값	33	0.217	0.193	0.242	0.252	0.168	0.336	1056.628

Trim and Fill 분석 결과, 보정 전 관측값의 랜덤효과 효과크기는 $g = 0.535$(95% CI [0.455, 0.615])이었으나, 보정 후에는 $g = 0.252$(95% CI [0.168, 0.336])로 감소하여 $\Delta g = 0.283$의 절대적 감소폭을 보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도 보정 전 0.291(95% CI [0.266, 0.317])에서 보정 후 0.217(95% CI [0.193, 0.242])로 하향 조정되어, 두 모형 모두에서 출판편향 또는 비대칭에 따른 효과크기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은석과 이형국(2020)에서도 Trim and Fill 분석 결과 13편의 연구가 보정되어 효과크기가 $g = 0.457$에서 $g = 0.362$로 감소한 바 있어, 출판편향 보정 후 효과크기의 하향 조정 경향은 본 연구와 일관된 방향을 보인다. 다만, 보정 후에도 랜덤효과모형의 95% 신뢰구간 하한(0.168)이 여전히 0을 상회하여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판편향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 관련 심리, 행동적 변인의 향상에 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이 일정 수준의 견고성(robustness)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보정 후 효과크기($g = 0.252$)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를 때 중간 효과에서 작은 효과(small effect)로 재평가되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관측값과 보정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등록 연구와 회색문헌을 포함함으로써 출판편향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5. 사범대학 및 영어교육과 진로교육 참여현황 분석

앞서 수행한 메타분석의 통계적 근거를 현장 실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재직하는 사범대학의 2022~2024학년도 3개년간 학생지도체제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교의 사범대학은 전통적으로 임용시험 준비를 목표로 학생 진로교육을 운영하며, 임용합격 선배 특강, 학원연계 특강, 교수법 시연, 모의수업 연습, 스터디 지원 등 교직 경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교직 중심 지원 체계 외에, 학생들이 교직 외 진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2024학년도 2학기에 사범대학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글 폼즈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범대학 11개 학과 재학생 중 총 508명이 다음의 표 6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6
사범대학 전공별 희망진로 및 진로 관련 변인 비교 ($N = 508$)

학과	N	교직	비교직	미정	임용계획	진로결정	진로준비
가정	57	55(96.5)	0(0.0)	2(3.5)	4.65(0.81)	4.23(0.95)	3.28(1.10)
유아	86	77(89.5)	0(0.0)	9(10.5)	3.71(1.28)	3.76(1.05)	2.93(1.06)
역사	51	43(84.3)	3(5.9)	5(9.8)	4.16(1.25)	4.31(0.97)	3.20(1.11)
체육	76	63(82.9)	2(2.6)	11(14.5)	4.30(1.31)	4.36(1.00)	3.43(1.09)
국어	34	28(82.4)	2(5.9)	4(11.8)	4.19(1.12)	3.82(1.03)	2.91(0.71)
수학	76	62(81.6)	3(3.9)	11(14.5)	3.83(1.44)	3.92(1.08)	3.18(1.02)
한문	12	12(100.0)	0(0.0)	0(0.0)	4.00(1.28)	3.58(0.90)	2.92(0.90)
중특	7	5(71.4)	0(0.0)	2(28.6)	4.00(1.15)	4.14(0.90)	3.14(1.21)
일어	49	33(67.3)	5(10.2)	11(22.4)	3.78(1.31)	3.78(1.19)	3.18(1.01)
영어	54	34(63.0)	10(18.5)	10(18.5)	3.37(1.50)	3.69(1.33)	2.78(1.27)
교육	5	2(40.0)	1(20.0)	2(40.0)	3.20(1.79)	4.00(1.00)	3.60(1.14)
전체	508	415(81.7)	26(5.1)	67(13.2)	3.98(1.33)	3.98(1.09)	3.13(1.08)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범대학 전체적으로 81.7%(415명)가 교직을 희망하여 교직 중심 정체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학과 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한문교육과(100.0%)와 가정교육과(96.5%)가 가장 높은 교직 희망률을 보인 반면, 영어교육과는 63.0%로 사범대학 11개 학과 중 가장 낮았으며(교육학과 40.0%, $N = 5$ 제외), 비교직(18.5%)과 미정(18.5%) 비율이 사범대 전체 평균(각각 5.1%, 13.2%)을 크게 상회하였다. 진로 관련 변인에서도 영어교육과는 임용시험 응시계획($M = 3.37$), 진로결정도($M = 3.69$), 진로준비도($M = 2.78$) 모두 사범대 전체 평균(각각 3.98, 3.98, 3.13)을 하회하였다. 이러한 희망진로의 구조적 차이가 실제 진로교육 참여 행동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진로 및 취업 지원 부서(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과, 교육혁신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별도로 분리 집계하였다. 지도교수 상담은 졸업 요건으로서 매학기 의무적으로 실시되므로,

학생들의 자발적 진로 탐색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대학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범대학 및 영어교육과 프로그램 참여 현황 비교

운영주체	2022	2023	2024	비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3/92명 (35.9%)	29/173명 (16.8%)	44/272명 (16.2%)	106/537명 (19.7%)
상담과	20/150명 (13.3%)	49/326명 (15.0%)	60/389명 (15.4%)	129/865명 (14.9%)
교육혁신원	11/58명 (19.0%)	26/75명 (34.7%)	9/111명 (8.1%)	46/244명 (18.9%)

교내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사범대학 전체 1,6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교육과 학생은 281명(17.1%)을 차지하였다. 본교의 사범대학이 11개 학과로 구성되어 학과당 기대 비중이 약 9.1%(1/11)임을 감안하면, 영어교육과의 실제 참여 비중은 기대치의 약 1.9배에 달하여,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진로상담 제도 외에 대학이 제공하는 자발적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다른 학과 학생들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진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영어교육과 학생 106명(사범대 비중 19.7%)이 참여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세부 프로그램 명칭을 살펴보면,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국제개발 및 NGO 활동가 양성과정', '진로·직무 페스티벌', '잡플렌더(Jobplendor) 미래 신직업 만들기', '기업탐방(KBS), 현직자 멘토링', '포트폴리오 특강' 등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로 워크숍, 기업탐방, 멘토링 등 활동중심(activity-based)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메타분석에서 비교과/취업지원($g = 0.695$)이 진로교과($g = 0.457$)보다 유의하게 높았고($Qb = 7.236$, $p = .027$), 활동중심 프로그램($g = 0.681$)이 강의+활동($g = 0.453$)보다 효과적이었던 결과($Qb = 7.636$, $p = .006$)와 부합한다.

진로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현황의 경우 영어교육과 학생이 2022년에는 20명, 2023년은 49명, 2024년은 60명으로 3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사범대학 전체 평균 증가율(2.6배)을 상회하였다. 구체적인 상담 유형별로는 진로상담(취업), 입사지원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이 포함되어, 학생들의 진로 준비가 탐색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장 데이터는 메타분석에서 상담·코칭($g = 0.682$)이 진로교과($g = 0.457$)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일관되며, 선행 메타분석에서도 최주영와 김경희(2020)의 집단상담($g = 0.860$) > 교과목($g = 0.451$), 김소정과 이슬이(2024)의 멘토링·특강($g = 0.647$) > 교과목($g = 0.555$)으로 유사하다. 교육혁신원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46명(사범대 비중 18.9%)의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자기이해 특강', '취업면접 특강',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

업기초역량 강화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는데, 메타분석에서 직업기초역량(g = 0.318, 95% CI [-0.100, 0.736])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단순한 학습 스킬 전수보다는 진로정체감(g = 0.652)이나 진로준비행동(g = 0.628)을 촉진하는 활동과 결합하여 설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교 영어교육과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워크숍, 멘토링, 상담, 기업탐방 등의 활동중심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였으며 사범대 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 진로 탐색과 준비에 비교적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상의 현장 데이터는 특정 사범대학의 사례에 기반한 것이므로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참여 빈도가 곧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선택이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유형(비교과/취업지원, 상담·코칭, 활동중심)과 유사하다는 점은, 향후 사범대학 진로교육 설계시 교직 중심의 단일 경로를 넘어 비교직 희망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출간된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의 효과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메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교 사범대학의 2022~2024학년도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결과를 논의한 후, 실천적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Hedges' g = 0.535(95% CI [0.455, 0.615])로 Cohen(1988) 기준 중간 수준의 효과에 해당하였다. 이는 이은석과 이형국(2020)의 진로교과목 메타분석(g = 0.457)보다 높고, 최주영과 김경희(2020)의 결과(g = 0.76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진로교육이 진로 관련 변인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결론의 근거가 확보되었다. 다만, Trim and Fill 보정 후 효과크기가 g = 0.252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크기는 보고된 수준보다 다소 작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 해석 시 관측값과 보정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절변인 분석에서 프로그램 유형(Qb = 7.236, p = .027)과 구성 방식(Qb = 7.636, p = .006)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변인으로 확인된 반면, 대상 학년(Qb = 0.073, p = .964), 프로그램 기간(Qb = 3.333, p = .189), 운영 방식(Qb = 2.309, p = .129)은 유의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유형에서 비교과/취업지원(g = 0.695)과 상담·코칭(g = 0.682)이 진로교과(g = 0.457)보다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결과는, 최주영과 김경희(2020)의 집단상담(g = 0.860) > 교과목(g = 0.451), 김소정과 이슬이(2024)의 멘토링·특강(g = 0.647) > 교과목(g = 0.555)과 유사한 패턴이다. 교과 기반 진로교육의 장점을 중심으로 상담 및 비교과의 개별화된 효과를 결합한 진로교과 모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구성 방식에서 활동중심(g = 0.681)이 강의+활동

(g = 0.453)보다 유의하게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체험이 진로발달에 핵심적임을 확인해 준다. 다만 이은석과 이형국(2020)에서는 강의+활동 절충 방식(g = 0.491)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워크숍, 기업탐방, 멘토링 등 체험 기반 프로그램이 활동중심 범주의 효과크기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 학년과 프로그램 기간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진로교육의 효과가 대상이나 기간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적, 구조적 설계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하며, 이는 김소정과 이슬이(2024)에서 운영기간(Qb = 0.68, p = .713)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종속변인별 효과크기에서 진로정체감(g = 0.652), 진로준비행동(g = 0.628), 진로결정자기효능감(g = 0.610)이 상위 3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Qb = 13.044, p = .071), 이는 이은석과 이형국(2020)에서 진로준비행동(g = 0.649)이 최고치를 보인 것, 김소정과 이슬이(2024)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g = 0.898)이 가장 컸던 것과 유사한 방향이다. 반면, 직업기초역량(g = 0.318, 95% CI [-0.100, 0.736])과 진로스트레스/장벽(g = -0.031, 95% CI [-0.399, 0.336])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은석과 이형국(2020)에서도 직업기초역량이 낮은 효과크기(g = 0.092)를 보였으며, 윤영란(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범용적 역량은 단기 프로그램만으로는 향상되기 어려운 장기적 특성을 지닌다. 진로스트레스/장벽의 효과크기가 영에 수렴한다는 결과는 현행 진로교육이 인지적, 행동적 과업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서적 부담 완화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넷째,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자발적 진로교육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범대학 11개 학과 중 영어교육과의 참여 비중(17.1%)이 학과당 기대치(9.1%)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어교육과는 교직 희망률(63.0%)이 사범대 내 가장 낮고 비교직+미정 비율(37.0%)이 전체 평균(18.3%)의 2배를 상회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어교육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임용시험의 답안을 영어로 서술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며, 중등 영어교원 신규채용 규모 자체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단일 경로의 현실적 한계를 체감한 학생들이 교직 외 대안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영어 전공이 통번역, 해외취업, 국제기구, 사기업 영어직군 등 교직 외에도 대안적 진로 경로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어학 전공 특유의 구조적 특성이 새로운 직업 분야에 대한 흥미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NGO 활동가 양성과정’, ‘기업탐방(KBS)’, ‘미래 신직업 만들기’ 등 비교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 진로교육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활동중심 구성 방식(g = 0.681)과 상담·코칭(g = 0.682)의 높은 효과크기는 정규 교과에 PBL·서비스 러닝 등 체험적 요소와 개별 상담, 멘토링을 통합한 진로교과 모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위 현장 자료는 단일 대학 사례에 기반하므로, 메타분석 결과와의 직접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탐색적 비교 수준

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편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가 KCI 등재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비유의한 결과를 보고한 학위논문이나 회색문헌이 포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회색문헌을 적극 포함하여 출판편향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면/혼합 운영 방식(k = 6), 정의적 변인(k = 4), 직업기초역량(k = 3) 등 일부 하위집단의 연구 수가 최소 기준에 가까워 통계적 검정력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비대면 및 혼합형 진로교육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역으로, 향후 이 영역의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운영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이므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특수성을 고려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향후 사범대학 학생 또는 특정 전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효과성 연구가 축적된다면 전공 맥락에 특화된 메타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의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종합하는 동시에 현장 자료와 연계하여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이용석, 조항. (2017). 대학생 개인진로상담에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83–408. https://doi.org/10.23844/kjcp.2017.05.29.2.383

강채미. (2021).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셀프리더십,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4*(3), 1–22. https://doi.org/10.32341/JCER.2021.9.34.3.1

교육부. (2023).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788

김기민, 정철영. (2023). 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대학 진로지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6*(2), 23–49. https://doi.org/10.32341/JCER.2023.6.36.2.23

김기현. (2015). *대학 진로교과목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대룡. (2021). 자기주도 학습의 직업탐색 교육이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1), 77–100. https://doi.org/10.24005/seci.2021.14.1.77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유형화*.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선우. (2024). 대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대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 341–351.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2.341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김소정, 이슬이. (2024). 4년제 대학 진로·취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육논총, 45*(2), 257–284. https://doi.org/10.55152/KERJ.45.2.257

민춘기. (2013). 대학생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해외 정책과 운영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3*(4), 31–58.

박재춘, 김주섭. (2017). 진로불확실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6), 201–225.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6.201

방희원, 손승민, 조규판. (2020). 대학생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547–568.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6.547

변미정, 김봉환. (2022).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회복탄력성 및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직업재활연구, 32*(1), 21–47.

서영균, 강혜영. (2019).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구직효능감 차이.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1*(2), 231–237. https://doi.org/10.14702/JPEE.2019.231

심기현, 심지현, 김혜영. (2024). 기초교양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의 교육 요구도 조사: S 여대 진로 관련 기초교양과목의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2*(4), 545-566.

오성은. (2023). 4년제 일반대학 취업지원 기관 운영 실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2), 493–515.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2.493

윤영란. (2014). 대학 진로교과목 수업방법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2*(4), 93–106.

이수연, 김봉환. (2026). 대학생 진로학습경험과 진로행동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9*(1), 53–76. https://doi.org/10.32341/JCER.2026.3.39.1.53

이은석, 이형국. (2020). 대학생 진로교과목 효과 메타분석. *직업교육연구, 39*(2), 71–91.

이종찬, 홍아정. (2012). 진로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0*(3), 177–206.

정우진, 정승철. (2021). 진로 성숙도와 진로결정 수준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404–418. https://doi.org/10.5392/JKCA.2021.21.09.404

조혜영. (20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대학 적응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5), 250–259. https://doi.org/10.5762/KAIS.2023.24.5.250

최지은, 조용선. (2022). 대학생을 위한 프로티언 경력 지향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537–558.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4.537

최주영, 김경희. (2020).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메타분석. *인문사회21, 11*(5), 313–328. https://doi.org/10.22143/HSS21.11.5.23

한국교육개발원. (2025, 12월 30일).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kedi.re.kr/khome/mobile2/announce/selectAnnounceForm.do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Begg, C. B., & Mazumdar, M. (1994). Publication bias test. *Biometrics, 50*(4), 1088–1101.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iley.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2nd ed.). McGraw-Hill/CTB.

Duval, S., &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method. *Biometrics, 56*(2), 455–463.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ritish Medical Journal, 315*(7109), 629–634. https://doi.org/10.1136/bmj.315.7109.629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orton.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Higgins, J. P. T., Thompson, S. G., Deeks, J. J., & Altman, D. G.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es. *British Medical Journal*, *327*(7414), 557–560. https://doi.org/10.1136/bmj.327.7414.557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Shamseer, L., Tetzlaff, J. M., Akl, E. A., Brennan, S. E., Chou, R., Glanville, J., Grimshaw, J. M., Hróbjartsson, A., Lalu, M. M., Li, T., Loder, E. W., Mayo-Wilson, E., McDonald, S., . .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British Medical Journal*, 372, n71. https://doi.org/10.1136/bmj.n71

Rothstein, H. R., Sutton, A. J., & Borenstein, M. (2005).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Wiley.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Wiley.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부록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목록

강경연. (2018). ARCS 동기전략을 활용한 대학 신입생 대학생활적응 교양교과목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821–845.

강미영. (2015). 대학생 대상 역량기반 진로교과목 운영의 효과. *취업진로연구, 5*(1), 1–27.

고숙희, 선혜영, 심미영, 탁진국. (2020).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경력정체성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7*(2), 73–100.

김마리아, 최지영. (2016).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23*(5), 123–151.

김수란, 정미경. (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https://doi.org/ 10.17927/tkjems.2014.26.3.409

김월주, 김소영. (2017).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671–685.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1.671

김지연, 이영순, 김동원. (2012).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인문학논총, 28,* 399–421.

김지연, 장은영. (2019).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6*(9), 125–159. https://doi.org/10.21509/KJYS.2019.09.26.9.125

김혜진. (2017). 진로설계 교과목이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813–820.

김희수. (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35–46.

김희수. (2012). 대학의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5*(1), 73–89.

김희수, 조성영. (2019).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대학생활연구, 25,* 1–24.

김훈숙, 김형균. (2018). 취업중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교육논총, 55*(3), 1–20.

박순주. (2012).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259–267.

박윤희. (201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진로교육연구, 29*(1), 165–183.

박효미, 이혜순. (2015).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및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304–312.

방희원, 조규판. (2022).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교과목 개발 및 효과. *교육문화연구, 28*(5), 249–270.

백새봄, 윤가영, 정수정. (2025). 대학생을 위한 AI 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육정보미디어연구, 31*(3), 739–766.

서영숙, 정추영. (2016). 진로코칭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2), 138–145.

서우석. (2017). 포트폴리오형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3*(1), 187–206.

손영민. (2016). Meaning-making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191–212.

송민선, 정헌식. (2024). 대학생들의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 *문화기술의 융합, 10*(1), 89–96.

안덕순, 박재희, 권정숙, 임지언, 박은주. (2019).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기법을 적용한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28*(0), 117-139.

안태숙, 유영주. (2020). 대학의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10), 174–182.

오명숙, 윤운성. (2015). 한국형 에니어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12*(2), 73–98.

윤명희, 이경선, 서희정. (2007).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목의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20*(2), 91–109.

윤영란. (2016).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9), 331–340.

윤영란. (2019).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9), 211–219.

윤희정, 김경아, 김지은, 김애진, 김진경. (2025). 실행연구 기반 대학생 진로 그룹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분석. *교육컨설팅코칭연구, 9*(2), 51–77.

이근매, 장성숙. (2015).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2*, 1439–1456.

이승순, 이근매, 송호준. (2018). 콜라주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발달장애학회지, 22*(4), 185–206.

이의용, 이윤옥, 윤옥한. (2015). 대학교 신입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 운영의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25–46.

이윤선. (2022). 대학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탐색행동과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자격 연구, 11*(3), 65–82.

이주재. (2023). 진로설계 교양교육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실천연구, 7*(2), 89–108.

이형국. (2007). 진로상담 기법을 활용한 진로교육 교과목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3), 103–119.

장성숙, 이근매. (201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콜라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23,* 1319–1345.

전은화. (2013). 대학 신입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기반 연구. *진로교육연구, 26*(3), 103–122.

정효정. (2016). 대학 신입생 진로교육을 위한 그룹코칭 기반 교과목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619–644.

조성진. (2017). 코칭이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9*(3), 51–60.

조성진. (2022). 코칭이 삶의 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혁신기업연구, 7*(3), 141–155.

주석진. (2020).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생 전공 진로지도 교과목의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33*(1), 1–20.

채희원. (2023). 대학생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교과목 효과성 검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969–979.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8.969

허은영. (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직업교육연구, 28*(4), 77–94.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71–91.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이혜진(교수)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Email: lee.hyejin0419@gmail.com

Received: April 12, 2026
Reviewed: May 20, 2026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25, 2026